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임**

1/9 월요일

아침의 누림

살후 1:3

3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 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여러분 각 사람의 사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딤후 3:15

1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딤후 1:14

14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 더 넘쳐서 그리스도에 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갈 5:6

6 그리스도에 수님 안에서는 할례 나무 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엡 6:23-24

23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받아들이고 (요 1:12),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누린다 (요 14:21, 23, 21:15-17). (딤후 1:14 각주 2)

주관적인 믿음, 곧 우리의 믿음은 행위는...
우리를 주님과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인도하며,
... 사랑을 통하여 작용한다 (갈 5:6).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일에서 주님과 하나였던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의 요소와 작용 안에서 고난받는 신실한 사도들을 사랑한 것이다. (딤후 3:15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지닌,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뛰어난 미덕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벧후 1:1 각주 8),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 (골 2:9) 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요 1:12),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며,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공급과 모든 것으로 얻게 된다.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믿음에서 나오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살아낼 수 있고,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영—은 영광스럽게 표현될 수 있다.
믿음은 삼일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을 감상하고 실재화하며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내기 위한 것이다.
믿음은 믿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며, 사랑은 믿는 이들이 동료 믿는 이들에게 삼일 하나님

을 공급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놀랍고 강력한 믿음 안에서 모든 믿는 이는 신성하고 뛰어난 사랑으로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디도서는...

놀라운 믿음과 지극히 탁월한 사랑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교회 타락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굳게 서서 교회 안의 하락하는 경향과 요인을 이기려면, 이 놀라운 믿음과 지극히 탁월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거나 밖의 상황을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근원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연결되었다.

또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이 지극히 탁월한 사랑으로 그분과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교회 타락의 흐름 가운데서 요한 계시록 2 장과 3 장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얻기를 갈망하시는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믿음과 지극히 탁월한 사랑은 우리와 연결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삼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 우리가 ...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삼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주목할 때, 삼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어, 우리 안에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되시고, 우리 밖에서는 그분께 속한 이들을 향한 사랑이 되신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며 받아들이는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실재요 표현이다 (요일 4:8, 16). ...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함께 한다.

사랑은 믿음에서나오고,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며 일한다(갈 5:6).
 우리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때,
 부패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대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신
 약경륜을 이루는 이는 교회 생활(엡 6:23-24)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하며(히 11:6),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고전 16:22).

하나님 아버지 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엡 6:23).(딤후 3:15 각주 1)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리전집, 1972년,
 1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1-2장

1/10 화요일

아침의 누림

엡 5:25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
 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고후 5:14-15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
 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
 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분을 향하
 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사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 축되
 는 것입니다.

계 2:4-5

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 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같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
 기겠다.

시 27:4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 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 의 아름다
 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시다.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
 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인들은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은 주목하지만, 에베소서 5 장
 25 절은 주목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에베소서 5 장
 25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을 본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체험할 필요
 가 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또 한 다
 시에 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에서 그리스도
 와 하나이다. 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 드리게 한다. (에베소서 라이프스타디, 79 장,
 719, 72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종교를 이기라고 명
 령하신다. 또한 이 일곱서신에서(계 2-3 장)
 주님은 우리에게 몇몇 다른 문제들도 이기라고 명령
 하신다. 우리가
 이기도록 명령 받은 첫 번째 것은 첫째 가는 사랑을 버
 리는 것, 곧 잃어버리는 것이다 (계 2:4-5 상).

첫째 가는 사랑을 가지는 것은 모든 일에서,
 심지어 모든 사소한 일들에서도 주
 예수님께 으뜸의 지위,
 곧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형제들은 넥타이를 살 때,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를 드려야 한다.
 자매들은 물건을 사러 갈 때,
 그리스도께 첫 위치를 드려야 한다.

토요 신문이 나오면,
 어떤 자매들은 신문을 읽고서 모든 백화점 할인 판매
 를 알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자매들이 주님께 으뜸의 지
 위를 드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물건을 살 때 주님께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상점에 가서 다른 것은 사지 말고 그것만 사야 한다.
 자매들은 백화점의 유혹을 이길 필요가 있다.(이기
 는 자들, 2 장, 35-36 쪽, 3 장, 49-50 쪽)

고린도 후서 5 장 14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합니다.”라고
 말한다.

바울이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었던 것은 그리스
 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이다(15 절). ...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밀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고린도 후서 5 장 14 절과 15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사랑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강권되는 것은 큰

파도의 물에 떠밀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큰 파도의 물처럼 강해서

우리를 정복하고 떠민다.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야 한다.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에게는 달 리 갈 길 이 없 습 니 다 .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므로 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홍 수 가 밀려올 때,

우리에게는 홍수를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홍수는 우리에게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야 한다.

우리가운데 있는 젊은 성도들은 그들이 오늘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항상 교차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많은 방향이 있다. 그들에게 선택할 여지가 많이 있겠지만, 일단 그들이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게 되면 선택할 여지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인 영원한 생명에 의해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에 잠기고 떠밀려야 하며,

결 모 습 이 아 니 라 영 안 에 있 는 그 리 스 도 의 내 적 인 분 량 에 의 해 사 물 을 인 식 하 고 분 별 하 는 것 을 배 워 야 한 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유익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것이다. (위트니스리전집, 1967 년, 2 권, 영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6 장, 256-25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스타디, 79 장; 이기는 자들, 2-3 장

1/11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4:8, 19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전 12:31

31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고전 13:4-8, 13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8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언도 쓸모없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그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13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종(種)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요 1:12-13).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 종 곧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는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자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종으로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요일 4:8, 19).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 1:26).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하 나 님 은 그 분 의 속 성 들 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속성들 중 첫 번째 속성이 사랑이다. 창조된 사람이 사랑의 실재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창조된 사람의 존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

심지어 타락한 사람 안에도 사랑하려는 갈망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신성한 속성의 표현인 인간 미덕일 뿐이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시작하셨다. (위트니스리고 봉메시지, 9 권, 활력그룹, 8 장, 160-16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동역자나 장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의도와 목적과 동기와의 행동에 어떤 형태의 교묘한 야심도 없도록 정결하게 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야심이 없이 겸손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은혜 사용될 수 있고, 주님에게서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위한 어떤 일에서도 오뎀이 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맡도록 안배할 필요가 있다. 책임이 맡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조나 표현에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침체되고 기분이 나빠진다. 이것은 바로 첫째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감추어진 야심의 교활한 일이다.

첫째로 우리는 야심을 주의해야 하고, 둘째로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 교만은 우리가 날때부터 지니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한 속성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누가 교만하지 않은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교만한 데서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겸손이 모든 종류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약 4:6). 만일 우리가 겸손하다면 은혜가 오게 된다. 만일 우리가 교만하다면 은혜는 사라지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 교만한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일에서 경쟁하는 것은 야심의 표시일뿐 아니라 교만의 표시이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일에서 사람들과 경쟁한다. ... 우리 모두는 우리가 무익한 노예 들임을 인정해야 한다 (눅 17:10).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며 또한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역량, 성공, 온전함, 미덕을 언급하는 것은 교만의 경솔한 모습이다. ... 그 대신에 항상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 “주님, 저에게는 조금도 역량이 없고, 당신의 일에서 조금도 성과가 없습니다. 더욱이 저에게는 조금도 완전함이 없습니다. 제가가진 것은 불완전함뿐입니다. 또한 제에게는 조금도 미덕이 없습니다. 제가가진 것은 실패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해지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 줄 것이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다 (롬 12:3).

크게 되기를 원하고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오뎀이 되기를 원하고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또한 교만의 표시이다 (마 20:26-27).

게다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헛된 영광을 탐내는 것은 모두 교만의 추악하고 비열

한 표현임을 보아야 한다 (갈 5:26). (위트니스리고 봉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4 장, 80-81, 83-85, 87-8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리고 봉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4 장; 위치만니전집, 57 권, 위치만니사역 재개메시지 기록, 22 장

1/12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31

31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고전 13:13

13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딤후 1:6-7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마 5:48

48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롬 12:11

11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고전 9:22

22 약한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엡 5:2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같아야 한다. ...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리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신성한 종(種)에 속하므로 선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악한 사람들도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활력 그룹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느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은행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두 강도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마 27:38).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눅 23:42)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한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43 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장 먼저

구원하신 사람은 신사가 아니라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인 강도였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다. (위트니스리 고봉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8 장, 163-16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 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이다.
이 영은 사랑의 영이다.
따라서 그것은 능력의 영이고 맑은 생각의 영이다(딤후 1:7).
우리는 자신이 아주 능력이 있고 맑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사랑의 영이 아니다.

바울은 우리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딤후 1: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된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본성이 있는 거듭난 우리 사람의 영이다.
우리는 이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분발 시킴으로써 불타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로마서 12 장 11 절은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고 말한다. ...
우리는 손상을 주는 불타는 권위의 영이 아닌 불타는 사랑의 영을 가져야 한다.
디모데 후서에서 언급되는 것은 모두 교회의 타락을 마주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다. ...
오늘날 교회의 타락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영 안에서 부채질되어 불타오르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이긴다.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교회의 하락을 이길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 신에 항상 부채질되어 불타오르는 사랑의 영으로 말하고 행해야 한다. 이것이 회복에 필요하다.

고린도 전서 12 장의 마지막 절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는

것을 계시한다(31 하절).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하는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사랑은 신언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뛰어난 길이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사랑은 이긴다. 우리는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한다(마 5:48).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우리 아버지의 종(種)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한다. ...
주 예수님은 자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의사로 왔다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은 “강건한 사람에게 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는 필요합니다.” (마 9:12)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9:22)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약하지만 자신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건축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위트니스리고봉메시지, 9 권, 활력그룹, 8 장, 166-1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리고봉메시지, 9 권, 활력그룹, 8 장

1/13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21:16

16 예수님께서 다시 두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대 가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벧전 5:2-4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동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으로 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 서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 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요 10:10b, 11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행 20:28

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히 13:20

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벧전 2:25

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루는데, 그분의 육체 되심 곧 하나님의 말씀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심으로 시작하여(1:1-14), 그분의 부활 곧 마지막 아담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마친다(20 장). 따라서 21 장은 분명 부록이다. 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21 장이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내재적이다. 21 장이 없다면 요한복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 그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사도들의 땅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한다.(위트니스리고봉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연구, 13 장, 17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0 장 10 절과 11 절과 16 절에서 주님은 그분께서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께 있는 다른 양들(이방인 믿는 이들)을 그 양들(유대인 믿는 이들)과 연결되도록 이끄셔서 한 목자 아래 있는 한 양떼(한 교회)가 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 주셨다.

첫째로, 주님의 목양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마 9:36). 주님은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내버려졌다. 하나님의 선민의 목자이신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내신 분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열두 사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마 10:1-6).

둘째로, 주님의 목양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는데(벧전 5:4),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 목양하고 계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목양하고 계신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한번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즉 하늘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도록 위임하셨다(요 21:15-17). 목양은 먹이는 것을 함축하고 있지만,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목양하는것은 모든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목양하는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려는 것이며,

이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사도행전 20 장 28 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또는 획득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 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13 장 20 절에서 바울은 “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 ” 이라고 말했다. 영원한 언약은 한양떼, 곧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를 얻기 위한 언약 곧 신약이다.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한다(벧전 2:25).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시는 것에는 외적인 것들뿐 아니라 내적 존재인 그들의 혼을 돌보시는 것도 포함된다. ...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실제 인격인 우리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신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권유한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 곧 신실한 장로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벧전 5:1-4).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떼인 하

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위트니스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연구, 13 장, 173-17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연구, 13 장

1/14 토요일

아침의 누림

시 23:1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고후 7:3-4

3 내가 여러분을 유죄 판결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4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매우 담대하며, 여러분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로 충만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고후 12:15

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엡 4:1-2, 11-12

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2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몬 7, 12

7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부분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
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12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22 편부터

24 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부터 오는

시대의 그분의 왕권까지를 계시해주는 한 부류의 시
들이다. 시편 22 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산출되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본다. 시편

23 편은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신 것에
관한 시편이다. 오늘날이 목자는 부활 안에 계신다.

시편 24 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장차 오실 왕이신 것에 관한 시
편이다. 이 세 시편들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교회를 산출하시는 그리스도,
목자이시며 자신의 양떼를 목양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셔서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시편 라이프스타디, 11 장, 16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 후서 7 장 2 절부터

16 절까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공급하는 생명에
서 나오는 친밀한 관심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할망하
는 모든

믿는 이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

이런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 오 늘 날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이렇게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
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회복함으로써 교회가 건축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에베소서

4 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근거한 것인데,
이장에서 바울은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전파자
들과 목자들 및 교사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써 성도들이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건축하는 이들이 되고,

교회에 공급하는 생명, ...

즉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생명이 필요하다.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보는 공급하는 생명은 열

매 맺는 생명이다. ...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이 고 거룩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요한복음

15 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

하시는데,

심지어 열매를 많이 맺고 남아 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이 공급하는 생명을 사는 것이다.

성도들을 목양할 때 ...

우리는 다른 이들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죽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친밀한 관

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우리는 어떤 가정을 방문하여 목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관심이 조금도 없을 지

도 모른다.

오히려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지식과 영성과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죽이는 것이다.

우리에겐 일을 수행할 재능은 있지만 친밀한 관심

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은

열매가 없을 것이다. ...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심
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바울은 생명을 공급할 때 매우 인간적이며 다정다

감했다. 바울은 그의 관심이

매우 깊고 친밀했기 때 문에 매우 다정다감했다.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기쁨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더욱 넘치

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대신 우리는 서리처럼 차갑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전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다.

또한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하기 보다는 훨씬 더 차갑

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녹여 주고 따뜻하게 해주

는 봄날씨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여기에 공급하는 생명에 대한 필요가 있다.

공급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생명이다.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배우라.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친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러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즉

다정다감하고 깊고 친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어리석거나 제정신이라

느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오직 공급하는 생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는 공급하는 생명의 결과이다. (고린도 후서 라

이프스타디, 44 장, 398-404, 40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시편 라이프스타디, 11-12 장;

고린도 후서 라이프스타디, 44 장

2023. 1. 9 ~ 2023. 1. 13

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2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4장

생각과 마음 씻어 주실 때-
주님의 생명만이 남으리.

4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어
날 통해 맘껏 나타나시길
은혜의 시내 사랑의 시내-
영원히 자유롭게 흐르길.

1/15 주일

아침의 누림

시 23:1-6

1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만 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3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4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5 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6 제 평생에 선과 자애가 분명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 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요 21:12-13, 15-17

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라고 여쭙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3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을 집으시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15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그대 가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16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대 가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찬송: 431 (英) 강한 사랑 날 하시고 (中:1081)

1 강한 사랑 날 강권하시고
큰 파도같이 나를 덮으사
내 혼에 통로 얻기 원하며-
모든 장애물 쓸어버리네.

2 그 강권에 순종치 않으랴
사랑의 흐름 거절하겠나
온유한 주님 나를 정복해-
나의 삶 전과 같지 않으리.

3 사랑으로 내 성품 깨뜨려
내 의지 감정 소유하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

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

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